

##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 〈방한림전〉\*

김경미\*\*

<차 례>

1. 서론
2. 〈방한림전〉에 재현된 젠더 위반의 표지들
3. ‘동성결혼’의 설정을 통한 젠더 체계 흔들기와 ‘동성애’의 자리 만들기
4. 동성애에 대한 조선사회의 태도와 〈방한림전〉
5. 결론

### <국문초록>

〈방한림전〉은 젠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9세기 말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방한림전〉은 성별 체계를 위반한 새로운 성적체성을 가진 인물과 결혼제도를 비판하고 가부장적 결혼을 거부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방한림전〉은 이러한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성결혼의 예를 제시한다. 그러나 〈방한림전〉에서 동성결혼을 한 두 인물은 지기(知己) 관계임을 강조하지만 실상 여기에는 동성애적인 면모가 은폐되어 있다. 이런 면모는 〈방한림전〉이 다른 여성영웅소설과 구분되는 지점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달라진 여성 의식과 새로운 성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방관주가 보여주는 새로운 성적체성에 주목하고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혼이 보여주는 동성애적 면모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결혼은 지기관계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당대의 젠더 규범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 생활은 고립되어 있고 우울과 냉소의 분위기가 깔려 있다. 〈방한림전〉이 보여주는 젠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은 조선후기 사회에 은폐되어 있던 동성성애의 소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방한림전〉이 생략적으로 보여주는 동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5).

\*\* 이화여자대학교 탈경계인문학연구단 연구원

성애적 면모나 기록 태도가 조선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보고 실제 인물인 이매죽당과 조옥잠의 예와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탈성화된 모습으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방한림전>은 급진적 성의식을 내포한 작품으로 소설사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방한림전, 젠더 위반, 동성결혼, 동성애, 여성영웅소설, 성정체성, 젠더 체계, 이매죽당, 조옥잠

## 1. 서론

<방한림전>은 19세기 말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영웅소설의 하나이다. 주지하듯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이 남장을 하고 공적 공간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다시 여성으로 돌아와서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이 남장을 하고 공적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플롯을 이루는 여성영웅소설의 존재는 내외법이 엄격하게 지켜졌던 조선사회의 젠더 체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여성주인공이 공을 세운 뒤에 다시 남성과 결혼하여 부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이처럼 남장을 한 여성을 등장시켜 여성의 능력을 입증하는 한편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설정이 갖는 이중적인 면모 때문이다. 즉 젠더 위반을 감행하는 인물을 등장시켰다가 이전의 젠더 체계로 고스란히 편입되게 하기 때문이다.

<방한림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자장에서 창작되었지만, 젠더 위반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리고 젠더 위반의 끝에 동성결혼을 설정하고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그 결혼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

서 더욱 문제적이다. 따라서 그간의 여성영웅소설 연구에서 <방한림전>은 특별한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다. 첫째는 <방한림전>의 두 여성주인공인 방관주와 영혜빙이 당대 여성의 삶을 모순된 현실로 인식하고 그 모순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한 작품으로 보는 입장이고,<sup>1)</sup> 둘째는 <방한림전>이 지기로 명명된 동성결혼을 하는 설정은 충격적이지만 이는 가부장제에 도전한다기보다는 통속적 흥미소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영혜빙이 여성적 자각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로 방관주와 지기 관계를 구현하려 하는 인물인 반면, 방관주는 남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로서 남성성을 체현하며 가부장적인 질서를 구현하는 인물로 평가된다.<sup>2)</sup> 셋째는 <방한림전>이 조선의 가부장제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작품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볼 때 방한림은 평등의 페미니즘을, 영혜빙은 차이의 페미니즘을 보여주며, 이 둘의 결혼생활은 이 둘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이다.<sup>3)</sup> 또 방관주에게는 남성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하고, 영혜빙에게는 지기와의 한평생을 갈등 없이 이어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문제의식을 끝까지 유지한 작품이다.<sup>4)</sup> 특히 <방한림전> 등의 여성영웅소설이 중세의 젠더 이분법

1) 강진옥, 「이형경전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p.119, 차옥덕, 「<방한림전>의 구조와 의미-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p.134,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 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p.141.

2)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pp.254-276,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지기관계의 변모」,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어국문학회, 2002, pp.225-244.

3)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p.184.

4)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21집, 반교어문학회, 2006, pp.223-248.

과 관련된 고정관념들을 해체하면서 국가와 제도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과 규범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고정된 성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up>5)</sup>는 평가는 <방한림전>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고소설 작품들과 비교할 때는 물론이고 여성영웅소설과 비교할 때도 <방한림전>은 고정된 성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성별 체계를 위반한 새로운 성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켜 이성애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도전한 급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인공들이 남자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결국은 여성의 위치로 돌아가는 반면, 방관주는 끝까지 남성으로 남으며 영혜빙이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4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한림전>이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에 속하면서 동시에 벗어나는 특징적인 면모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인공 방관주가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방관주와 또 다른 여성주인공 영혜빙의 결혼은 단순히 동성결혼으로만 볼 수 없는 국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혼이 갖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방관주가 보여주는 새로운 성정체성과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혼이 보여주는 동성애적 면모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한림전>이 보여주는 젠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실상은 조선후기 사회에 은폐되어 있던 동성성애의 소설적 표현이었음을 조선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나 현상과 관련하여 살피고자 한다.

<방한림전>(단국대 천안캠퍼스 소장)의 이본으로는 <낙성전>(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쌍완기봉>(정확성 가내 소장) 등이 존재하며, 이 세

5) 박혜숙, 위 논문, pp.188-189.

이본은 모두 필사본이다. 작가는 미상이며 창작 연대는 19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필사기가 20세기에 가까운 것<sup>6)</sup>으로 미루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까지 읽혔을 것으로 보인다. 제목 상으로는 각기 다른 지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사 전개가 같으며 이본 간의 큰 차이는 없다.<sup>7)</sup> 이 글에서는 <방한림전>을 저본으로 하고 <낙성전>, <쌍완기봉>을 참고하여 교감한 현대역 <방한림전>을 텍스트로 택하였다.

## 2. <방한림전>에 재현된 젠더 위반의 표지들

<방한림전>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작품 전체에 걸쳐 있는 갈등과 해결이 방관주의 젠더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려서부터 여자 옷 입기를 거부하고 남자 옷을 입고 자란 방관주가 부모를 잃은 뒤 혼자 집안을 지키며 여도(女道)에는 더욱 관심이 없고, 과거에 급제한 뒤 영혜빙과 결혼한다. 다른 사람의 절제를 받아야 하는 결혼을 싫어하는 영혜빙과 남자 옷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하는 방관주(방한림)는 부부를 가장한 지기(知己)로 함께 산다. 방관주의 관직은 더욱 높아지고 둘은 영화로운 삶을 산다. 이때 형주가 어지러워 방한림이 안찰사로 나가게 되고 여기서 낙성을 얻어 아들로 삼는다. 오랑캐가 침입하자 방관주는 자원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공을 세운다. 낙성은 혼인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방관주 영혜빙 부부는 지기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방관주 낙성 부자의 명망은 높아간다. 어느 날 도사가 방문해 음양을 속인 죄를 꾸짖고 죽음을 예고하자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죽으니 얼마 있다 영혜빙도

6) 장시광,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림전』, 한국학술정보(주), 2006, p.242.

7) 장시광, 위 책, p.249. 세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이 책 pp.244-250 참조.

따라 죽는다.

이상의 줄거리에서 보듯 <방한림전>에는 영웅소설이 흔히 갖고 있는 가문의 몰락과 회복 모티프가 없으며, 혼사에 따른 장애 모티프도 없다. 다시 말해 작가는 방관주가 기문이나 혼사를 둘러싼 문제로 세계와 심각한 갈등에 빠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웅으로 성장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 작가의 관심은 생물학적 여자인 방관주가 남자로 살아가면서 부딪칠 문제들, 예컨대 결혼, 수염이 나지 않는 것, 자식이 없는 것, 음양을 바꾸어 산 데 대한 세상의 평가 같은 데 집중되어 있다. <방한림전>과 보통 ‘여화위남(女化爲男)’ 모티프가 나오는 소설들이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는 <방한림전>이 젠더 체계의 위반을 서사 전개의 한 모티프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 1) 새로운 성정체성의 등장 - 방관주

<방한림전>의 주인공인 방관주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서의 삶,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의 삶, 즉 젠더로서의 여성의 삶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옥으로 새긴 듯한 꽃 같은 딸로 태어난 방관주는 “비록 딸이었으나 산천의 정기를 모은 듯 광채가 찬란”<sup>8)</sup>하더니 서너 살이 되면서부터 여성의 면모가 없고 날로 늙름해진다.

딸(방관주)이 서너 살이 되니 용모가 시원스럽게 생겼고 기상이 빼어나 규방 여자의 행동이 없었다. 몸은 날로 늙름해지고 흰 연꽃 같은 얼굴색이며 가을하늘과 같은 높은 기운에 진주와 같은 눈빛이 있었다.(14면)

8) 장시광, 위 책, p.13. 이하 인용문 뒤에 책의 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이러한 용모에다 재주가 뛰어나 방관주의 부모는 아들이 없는 것을 한  
으로 여기지 않았다. 방관주가 자신에게 주어진 성별역할을 거부하는 것  
은 여자옷을 입지 않고 남자옷을 입는 것에서 시작된다.

방공 부부가 붉은 비단옷과 색깔 있는 옷을 입히려 했으나 소저는 천  
성이 소탈하고 검소하여 삼베로 엮은 옷을 입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딸의  
뜻에 맞추어 소원대로 남자옷을 지어 입히고 아직은 어렸으므로 여공을 가  
르치지 않는다고. 오직 시 짓는 법과 글 쓰는 법을 가르치니 …… 온갖 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를 무시할 정도였다.(14면)

방관주가 남자옷을 입게 되는 것은 부모의 뜻이 아니라 방관주의 뜻이  
다. 방공 부부가 여자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붉은 비단옷과 색깔  
있는 옷을 입히려 하자 방관주는 삼베로 엮은 옷을 입으려 한다. 여기서  
작가는 스스로 교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저의 천성이 소탈하고 검  
소해서 삼베옷을 입으려 한다는 진술과 딸의 뜻에 맞추어 소원대로 ‘남자  
옷’을 지어 입혔다는 진술 사이에는 건너뛰어 있기 때문이다. 천성이 소탈  
하고 검소해서 삼베옷을 입는 것과 남자옷을 입는 것은 사실 아무런 연관  
이 없다. 붉은 비단옷과 색깔 있는 옷과 삼베옷의 대비는 작가도 “천성이  
소탈하고 검소해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듯이 화려한 옷과 검소한 옷의  
대비이지, 남자옷과 여자옷의 대비는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딸의 뜻에 맞추어 소원대로” 남자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작가는 여자옷은 붉은 비단옷, 색깔 있는 옷 즉 화려한 옷이고, 남자  
옷은 삼베로 엮은 옷, 즉 검소한 옷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작가는 남자옷을 입으려 하는 방관주를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요즘 말로 하면 ‘복장전환’이라 할 수 있는 방관주

의 선택을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하고, 소탈하고 검소하다는 것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남자에 대한 선망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방관주의 복장전환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 방관주는 길쌈과 바느질을 거부하고 부모도 이를 승인한다. 부모가 보기도 딸의 재주와 외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여자옷을 입히지 않고 친척에게는 아들이라고 하여 아들로 키우는 것이다.

방관주에게 길쌈과 바느질을 권하면 스스로 하지 않으니, 부모 또한 딸의 재주와 외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권하지 않았다. 여자옷을 입히지 않고서 친척에게는 아들이라고 하였다.(15면)

위 인용문에서 보듯 방관주가 길쌈과 바느질을 스스로 하지 않자 부모는 딸의 재주와 외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옷을 입히지 않고 친척에게 아들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작가는 방관주가 길쌈과 바느질을 싫어하는 것과 여자옷을 입히지 않는 것, 아들이라 한 것을 바로 연결시키고 있다. 길쌈과 바느질을 싫어한다는 것과 여자옷을 입지 않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자옷을 입지 않으려 하고 남자옷을 입고 싶어하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방관주를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딸의 남다른 성정체성을 인정하던 부모가 죽은 뒤 방관주는 여자로서의 삶에 더욱 관심이 없어지며 주위에서도 여자임을 알지 못한다.

부지런히 책을 읽고 여도(女道)에 대해서는 뜻이 더욱 없어져 한결같이

남자로 처신하고 비복(婢僕)을 위엄으로 다스리니 그의 정체를 친척도 알지 못하였다.(15면)

그러나 방관주의 비밀을 아는 유모는 계속해서 그만둘 것을 종용한다. 세상의 눈을 대변하는 유모에게 방관주의 행동은 “우스운 행동”일 뿐이다. 그러나 방관주는 유모의 이런 말에 화를 내며, 입신양명하여 부모의 후사를 빛낼 것이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후 시 짓기와 글쓰기로 세월을 보내는 방관주는 “위엄이 있고 매서워 조금도 여자의 부드러운 모습이 없”(17면)게 되며 “내가 비록 여자지만 남자로 처신했으니 세상 여자의 남편 섬기는 도리를 어찌 하겠는가?”(19면)라고 하며 여자의 삶을 거부하고 과거시험에 응시하기로 한다. 과거에 급제한 뒤 공직에 나가고 여자와 결혼까지 감행한다.

방관주는 여자로 태어났으며 남자임을 한 눈에 드러내주는 남자옷을 입고, 남자의 일로 규정된 것들을 수행한다. 그런 방관주 역시 스스로에 대해 설명할 정확한 언어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어리석은 일로 규정한다.<sup>9)</sup> 그러나 영혜빙 이외에 방관주가 여자임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영혜빙의 도움으로 더욱더 완벽하게 남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작품 내에서는 방관주가 이러한 성정체성을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방관주의 이러한 성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방관주는 작품 말미에서 자신을 “일개 아녀자”로 묘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 방관주는 남자와 여자

9) “나는 근본이 그대의 의심과 같도다. 하늘로부터 큰 벌을 얻어 부모님을 여의고 고독한 몸이 되었네. 외딴 시골마을에 친척이 드물어 사방을 둘러봐도 의탁할 사람이 없어 어찌할 방법이 없었네. 할 수 없이 이런 모습으로 지내며 속절없이 세월을 보냈도다. 이미 열 살이 되어 어리석은 기운이 더욱 그칠 줄을 몰라 이 지경에 이르렀더니 오늘 그대가 분명히 알아보았구려.”(34-5면)

라는 고정된 젠더 체계를 교란시키는 인물이다.<sup>10)</sup>

## 2) 가부장적 결혼 거부를 통한 젠더 위반 - 영혜빙

방관주가 어려서부터 “보통사람이 아니어서” 남자옷을 입고 남성의 삶이라고 규정된 삶을 선택함으로써 젠더를 위반한다면 영혜빙은 여자의 삶이라고 규정된 삶에 문제를 제기하고 결혼을 거부함으로써 젠더를 위반한다. 병부상서겸 태학사인 영의정의 막내딸인 영혜빙은 용모와 재주가 형제 중에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운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외모가 여느 여성과 같이 묘사되고, 여성이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그녀가 다른 여성과 다른 점은 결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문득 세상 부부의 영욕(榮辱)을 초월(楚越) 같이 배척하여 말끝마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자는 죄인이다. 온갖 일에 이미 마음대로 못하여 남의 규제를 받으니 남아가 못 된다면 인륜을 끊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언니들의 구차함을 비웃었다. 형제들은 활발하다고 조롱하고 부모는 그 마음을 괴이하게 여겼다.(26면)

영혜빙의 이런 뜻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방관주와 혼인시키려고 정성껏 구혼하고, 방관주를 집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방관주가 있는 자리에 딸을 나오게 해서 선을 보인다. 이 자리에서 방관주를 본 영혜빙은 내당으로 돌아가 “예로부터 남자가 참으로 고운 사람도 많다고 하

---

10) 이러한 방관주의 행동이나 성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남자옷을 입는다는 점에서 복장전환자(크로스드레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고, 남성적인 복장, 남성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부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WIG,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사람생각, 2008, 사람생각, pp.16-22 참조.

나 여자와는 차이가 많으니 어찌 이런 남자가 있겠는가”(30면)하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방관주가 본래는 여자임을 알아본다. 그리고 남자옷을 입은 데 대해 어려서 부질없이 남자옷을 입다가 부모가 일찍 죽고 여자의 도리를 권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짐작하고 이를 차라리 잘된 일이라 여긴다.

내가 보니 방씨의 얼굴이 시원스럽고 행동거지가 단엄하여 일대의 기남자(奇男子)다. 이런 영웅 같은 여자를 만나 일생 지기가 되어 부부의 의리와 형제의 정을 맺어 한평생을 마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내 본디 남자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 그의 절제(節制)를 받으며 눈썹을 그려 아첨하는 것을 괴롭게 여기고 있었다. 금슬우지(琴瑟友之)와 종고지락(鐘鼓之樂)을 내가 원하지 않더니 우연히 이런 일이 있으니 어찌 우연하다 하리오? 반드시 하늘이 생각해 주신 것이다. 수건과 빗을 맡는 구구한 일보다 이것이 낫지 않으리오?(30-31면)

“규방의 여자 가운데 세상 이치를 꿰뚫어 아는 여자”(34면)인 영혜빙은 남자의 절제를 받는 가부장적 결혼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방한림이 여자인 것을 알아보고도 결혼을 감행하며, 일생토록 처자의 도리를 잃지 않겠다고 한다. 영혜빙이 말하는 처자의 도리는 다른 연구에서 지적하듯 방관주와 가부장적 위계에 따른 처자의 도리가 아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영혜빙이 원하는 바 동등한 지기(知己) 관계로 유지된다.

<방한림전>이 가부장적 질서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방관주가 뒤로 갈수록 가부장적인 면모를 띠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설령 방관주가 그런 태도를 드러낸다 해도 영혜빙에 의해 비판 받거나 거부된다.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이 유지되는 내내 근심어린 충고

를 하는 유모에게 방한림이 화를 내어 꾸짖는 장면을 본 영혜빙은 방관주의 자를 부르며 유모 편을 들어준다. 이에 대해 방한림이 “여자의 도리를 알 때”인데도 가장의 자를 부르느냐고 질책한다. 그런 방관주의 태도에 대해 영혜빙은 “낭랑하게” 웃어 넘긴다.(50면) 영혜빙의 웃음은 방관주의 태도를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데, 방관주가 가부장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방관주가 임금에게서 상으로 받은 통천관은 자신이 하고 서진과 책은 아들인 낙성에게만 주자 영혜빙이 낭랑하게 웃으며 자기 것은 없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방관주가 “부인에게는 당치 않는 것”이라고 하며 부인이 가진 것이 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만족하지 않고 투정하니 욕심이 많다고 하자, 영혜빙은 빙그레 웃으며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홀로 맞는 것이 있느냐” 받아친다. 이 말을 들은 방관주가 눈썹을 찌푸리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영혜빙은 여유롭게 웃는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영혜빙은 방관주의 위세나 능력에 기죽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구속받지 않고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영혜빙은 가부장적 결혼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를 거부한다. 그런데 그 거부의 방식이 동성결혼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영혜빙은 방관주리는 새로운 성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당대의 젠더 규범을 벗어난 결혼 생활을 기꺼이 선택한다. 이런 점에서 영혜빙 역시 젠더 위반을 수행한 인물로 볼 수 있다.

### 3. ‘동성결혼’의 설정을 통한 젠더 체계 흔들기와 ‘동성애’의 자리 만들기

앞서 보았듯이 방관주와 영혜빙의 젠더 위반은 결국 동성결혼이라는 형태로 귀결된다. 여성이 남자옷을 입고 공적 공간에 나가 공을 세우는 내용의 작품들은 많이 창작되었지만 <방한림전>처럼 동성결혼을 설정해서 끝까지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작품은 드물다. 이런 점에서 <방한림전>의 주제의식은 젠더 위반의 결과 이르게 된 ‘동성결혼’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방관주와 영혜빙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막고자 하는 방관주의 목표<sup>11)</sup>와 앞서 보았듯이 남자의 절제를 받지 않겠다는 영혜빙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결혼이라는 형식 속에서 지기(知己) 관계로 살기로 한다. 이 둘이 결혼이라는 형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혼 이외의 다른 관계나 독신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부관계를 한 친구관계로 40년을 함께 사는 것이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설정은 파격적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런 설정이 허용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기(知己)라는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이상적 인간관계의 한 전형을 차용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는 물론 동성결혼에 따르는 성애적인 요소를 소거한다는 뜻이다. 사실 <방한림전>에서 방관주, 영혜빙의 결혼이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성애적 요소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방관주가 자신의 실체를 밝힌 뒤 앵혈을 보이는 대목은 그녀가 여자임을 확인시키

11) “영공이 방한림을 크게 사랑하여 구혼을 정성껏 하였다. 한림이 매우 괴로웠으나 또한 이미 남자로 행세하여 몸을 마치려고 하면서 처자를 두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니 차라리 아름다운 숙녀를 얻어 평생의 지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26-7면)

는 행위이기도 하면서 그간 성애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sup>12)</sup>

작가는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혼을 성애적 요소가 없는 ‘지기’관계라는 설정을 통해 독자를 설득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방관주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부부의 즐거움을 긴요치 않게”(35면) 여기며, 영혜빙은 “지극히 맑아 부부의 도를 괴롭게 여기는”(75면) 사람이라는 설정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방관주와 영혜빙이 지기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기관계 이상의 감정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방관주가 형주 안찰사로 나가게 되어 이별하게 된 두 사람이 “몇 년 간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매우 슬프”(39면)다고 하거나 “이별하는 것이 가장 괴로우니 관포의 지기가 데면데면하지 않음을 알겠다”(39면)며 연연해하는 대목이나, 이후 오랫동안 타향에 머물게 된 방관주가 “규방 흥안이 외롭게 지내는 것을 그리워하”는 대목에서 지기관계 이상의 감정선을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결코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이별의 슬픔을 제사를 정성껏 받들라는 당부로 마무리하거나 영혜빙에 대한 그리움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에 대해 단순히 친밀한 지기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 동성애적인 요소가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지로 영공의 집에 따라간 방관주는 영혜빙을 보고 “속으로 경탄하고 사모하며 칭찬하여 저렇듯 예쁘고 재기 있는 여자는 온 세상

12) 방관주가 자신이 실은 여자임을 밝힌 뒤 임금에게 규방의 여자로 몸을 세상에 드러내 예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자신의 팔뚝에 있는 앵혈을 보이며 임금을 속인 잘못을 빌자 임금은 경의 절개 있는 행동은 주표(앵혈)를 보지 않아도 안다고 하며 방관주에게 “만고의 영웅이요, 열녀절부”라고 칭찬한다.

을 통틀어도 다시 얻지 못할 것”(28면)이라 찬탄하며 결혼을 허락하고, 영혜빙 역시 “일대의 기남자(奇男子)”라 하고 “이런 영웅 같은 여자를 만나 일생지기”가 되어 부부의 의리와 형제의 정을 맺어 한평생을 마치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한다.(30면) 이처럼 이들의 결혼은 남자의 삶을 살기로 한 방관주와 가부장적 결혼을 거부하는 영혜빙의 이해가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 있다. 이때 결혼상대가 동성이라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유모의 제지가 있지만 방관주는 이를 무시하며, 영혜빙은 “그가 여자인 것을 몰래 기뻐하”(32면) 두 사람 모두 “다행히 지기(知己)를 얻어 서로 인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기뻐하였다.”(36면)

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낙성이라는 아들까지 얻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막으며 걸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유지된다. 방관주에게 “우스운 행동”을 그만두라고 충고했던 유모가 옆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sup>13)</sup> 이외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관계는 고립되어 있으며, 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관주, 영혜빙 두 사람의 시선은 때때로 우울하고도 냉소적이다. 이 고립된 감정과 우울하고 냉소적인 시선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처음 결혼한 뒤 두 사람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사이좋게 둘만의 생활을 유지한다.

이후에 두 사람이 화락(和樂)하여 한림이 조정에 갔다가 오면 내당에서 종일토록 보내고 외당에 손님을 모으지 않았다. 사람들이 고요하고 단정함

13) 유모는 수시로 방관주와 영혜빙에게 근심어린 충고를 한다. “매사에 부인과 낭군은 즐기시기만 합니다. 바로 기둥에 불이 붙는데 제비와 참새가 오히려 즐긴다 하더니 흡사합니다.”(49면)

을 더욱 칭찬하였다.(36면)

위 예에서 보듯 방한림의 생활은 관직에 나가는 것과 집안에서 영혜빙과 지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생일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방한림이 외직을 나가기도 하지만 이 둘의 생활공간은 거의 내당에 국한된다. 이는 둘 사이가 좋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방관주와 같은 성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나, 이 둘의 결혼관계가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이 두 사람만이 있는 내당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화락하고 영예로운 삶에는 우울과 냉소가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조짐은 방관주와의 결혼을 선택한 영혜빙에서부터 나타난다.

평생 지녀온 철육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생각을 정하니 세상일이 뜬구름 같았다. 생각을 단단히 먹으니 기괴한 일이었다. 옛날 도원결의(桃園結義)와 유백아, 종자기의 지음(知音)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 두 사람뿐이었다.(31면)

비록 방관주에게 이끌리고 남자와의 결혼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는 해도 막상 생각을 정하니 세상일이 뜬구름 같고, 기괴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도원결의, 백아와 종자기 같이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가 지금은 자신들 두 사람뿐인 것으로 여겨진다. 세상일이 뜬구름 같고 기괴한 일로 느껴지며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관직 생활을 하는 방관주에게도 결혼을 하면서부터 내내 근심이 따라다닌다. 결혼하는 날 서평후가 종이 등을 내어 신부에게 옷 입기를 재촉하

는 시를 지으라 하자 방한림은 그욕이 실소하고, 신방에 나아가서도 방한림의 수려한 눈썹 사이에 근심이 묵묵히 어린다. 방관주의 이런 근심은 영혜빙의 인륜을 끊었다는 자책에서 비롯되며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륜을 끊는다는 말 속에는 영혜빙이 남녀 관계를 통해 출산을 하고 후사를 잇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둘 사이의 성애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방관주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임금이 영 소저에게 봉관화리(鳳冠花履)와 명부(命婦)의 옷을 주니 영광이 더욱 성했으며 한편으로 영 소저의 풍채를 도왔다. 시랑이 눈을 들어 소저를 보고는 차게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이 학생 같은 남편을 만나 열셋 청춘에 나의 아내가 되어 봉관화리를 얻으니 일찍 출세함을 축하하노라.” 영 소저가 화관을 숙이고 붉은 입술에 흰 이를 드러내어 말하였다. “이것이 다 현후의 은덕이니 큰 덕이 산악과 같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은총을 입는 것이 사리에 옳으니 어찌 도리어 아끼십니까?” 시랑이 크게 웃고 또한 자신이 남자 아님을 슬퍼하였다.(38면)

임금이 하사한 명부의 옷을 입은 영 소저를 본 방관주의 냉소는 무엇을 향한 것인가? 아름다운 영 소저의 풍채를 보고 그 인륜을 끊은 것에 대한 냉소인지, 자신 덕분에 일찍 출세한 것에 대한 냉소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냉소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것은 영 소저와 말을 주고받은 뒤 크게 웃으며 자신이 남자 아님을 슬퍼한다는 대목에서이다. 이 때 그가 남자 아님을 슬퍼하는 것은 공적인 세계에 나가지 못해서도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와 같이 다시 여자로 돌아가야 해서도 아니다. 지금 방관주에게는 이 문제들과 관련한 제약도 요구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관주

가 남자 아님을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가는 여기서 분명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이 생략된 부분은 아마도 성애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더 이상 추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공으로 봉관 화리를 쓴 영 소저를 바라보는 방관주의 냉소가 자신의 남장과 관련이 있음은 틀림없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방한림전>은 방관주와 영혜빙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설정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젠더 위반을 끝까지 밀고나가서 동성결혼 속의 지기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다. 이 결혼이 소설 속에서 허용되고, 또 당시 사회에서도 허용되었던 것은 성애적인 요소를 제거한 지기관계임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에는 동성애적인 요소가 잠복해 있다. <방한림전>의 지기관계는 유교 사회에서 남자들의 우정 관계를 지칭하던 ‘지기’를 전유한 것으로 동성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작가는 성애적인 부분에 대해 극도로 서술을 절제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방한림전>에 설정된 동성결혼은 젠더 체계를 흔들고 이성애에 기반한 가부장적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상상을 보여준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이 당대 사회에서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기에 우울과 냉소가 작품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방한림전>은 우울과 냉소, 고립된 생활을 가져온 젠더 위반과 동성결혼이 사회적으로도 허용 받는 것으로 작품을 끝낸다.<sup>14)</sup> 젠더 위반과 동성결혼이 임금의 용서를 받았

14) 천상의 존재라 할 수 있는 현산 도사의 방문을 받은 방관주는 “일개 아녀자로 남자로 행세한 것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어찌 천벌이 없으리오?”라고 하며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에 대해 임금은 “만고의 영웅, 열녀의 절부”라고 칭송하며 용서한다. 그 뒤 방관주는 죽고 이이서 영혜빙도 죽어 이 둘은 “사생을 함께 한 지기로 같은 무덤에 안장”된다. 이 일이 드러난 뒤에 곧 죽는다는 설정은 정체가 드러난 뒤에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한림전>의 성의식은 급진적인 면모를 갖는다.

<방한림전>은 젠더 위반을 통해 젠더 체계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기의 전유를 통해 동성애가 놓일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담론의 새로운 장을 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후일담에서 위국공(낙성)의 꿈을 통해 방관주와 영혜빙의 젠더 위반과 동성 결혼이 천상에서의 벌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설정에 대해 대중적, 통속적 설정이라 보는 데 대해서도 필자는 의견을 달리한다. 동성결혼도 천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동성결혼, 동성애가 놓일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한림전>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이나 적절히 호명되지 못하고 부재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나 동성애를 존재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이 여성의 위치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인식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성애적인 부분에 대해 극도로 절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실상은 동성애에 대한 억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조선사회의 태도와 관련시켜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 4. 동성애에 대한 조선사회의 태도와 <방한림전>

<방한림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조선사회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젠더 위반이나 동성애의 영역을 전면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동성연애’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 동성애라는 용

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3년이다.<sup>15)</sup>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성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 1920년 이후 동성애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이전 조선사회에 동성애는 남자의 경우 계간(鷄姦), 남색(男色), 남총(男寵), 외색(外色), 용양(龍陽)으로 여자의 경우 대식 등으로 지칭되었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미남자, 미동, 비역(屁役), 완동(翫童) 등으로 지칭되었으며, 공식문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세종의 며느리 봉씨가 궁녀와 동성애적 관계를 맺어 쫓겨나는데 그 내용이 실록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세종은 이 일이 너무 추잡하다고 하여 교지에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sup>16)</sup> 동성애에 관한 기록은 세종조에 한 건 더 보이는데 그것은 태조의 손자뻘에 해당하는 왕족 이선(李宣)과 관련한 기록이다. 세종은 이선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조판서 벼슬까지 내린다. 결국 이선은 권력을 전횡하여 파직되지만 남녀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방 하나를 따로 두어 예쁜 사내종 하나와 함께 자기를 처나 첩 같이 하니 동네에서 그 종을 가리켜 ‘이정승의 첩’이라고 부른다. 그 종은 안방에도 거침없이 출입하고 그의 처와 동침까지 하게 되어 추잡한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으나 선은 그것을 금하지 않고 또 거리까지도 않았다.(常居家, 別置一室, 與一貌美奴寢處, 若妻妾然。閭里指其奴曰:

15) 신지연, 「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6, p.266.

16) “봉씨가 궁궐의 여종과 동숙한 일은 매우 추잡하므로 교지에 기록할 수 없다. 우선 성질이 질투하며 아들이 없고, 또 노래를 부른 네다섯 가지 일의 잘못을 들어, 세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속히 교지를 지어 바치게 하라.(奉氏與宮婢同宿之事極醜, 不可載於教旨. 姑以性妬無子, 又唱歌等四五事數之, 與三大臣同議, 速製教旨以進.)” 세종실록 18년, 1436년, 10월 26일. 『조선왕조실록 CD』.

“李相之妾。”其奴出入壺內無防，至有薦枕於其妻，而醜聲頗聞於外，宣不之禁，亦不憚也<sup>17)</sup>

위 기록은 이선이 사내종과 동성애적 관계를 맺었고, 사내종은 다시 이선의 처와 관계를 맺었는데 이선은 여기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고 전한다. 세자빈 봉씨의 동성애에 대한 기록의 자세함에 비하면 이 기록은 매우 소략한 편인데, 이후에는 공식 기록에서 동성애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보기 어렵다. 아마도 세종의 지시대로 추잡하다고 여겨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에 간 통신사 일행이 일본의 풍습을 논하면서 ‘남색’ 풍습에 대해 기록한 것이나,<sup>18)</sup> 이규경이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중국의 ‘남색’ 풍습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남아 있어 동성애에 관한 관심이 계속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는 데 비해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봉씨 이후 거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 매죽당 이씨와 조소사에 대한 이야기는 동성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여성의 지기관계의 한 예를 보여주며, 조선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예는 <방한림전>이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전개를 공유하면서 조선사회의 저변에 흐르던 동성애적 흐름을 소설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매죽당 이씨와 조소사에 관한 이야기는 야담과 전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하나는 <좌계부담>의 기록이고, 또 하나는 임경주(1718-1745)가 쓴 <매죽당이씨전>이다. 다소 길지만 인용해 본다.

17) 세종실록 29년, 1447년, 4월 18일 『조선왕조실록 CD』.

18) 『해사록』, 정축년(1637) 1월 27일.

사죽 한생의 부인 이씨는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자라, 오빠들이 글 읽는 소리를 귀 익게 듣고는 외우고 기억해서 잊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덧 문장을 이루어 꺼내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을 놀라게 했던 것이다. 결혼한 뒤에도 부귀영화에는 전혀 뜻이 없어 한적한 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길쌈이나 바느질에는 처음부터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 때 중인 집 처녀 조소사(趙召史)는 이름이 옥잠이요, 호가 현포(玄圃)인데, 이씨의 명성을 전해 듣고 도보로 찾아왔다. 단박 옛 친구를 만난 듯했다. 그네들이 주고받는 말은 실로 사물의 이치를 꿰뚫었고 경전과 역사를 토론하여 속세의 남자들이 감히 그네들 규방의 세계를 넘볼 수 없었다. …… 오래지 아니하여 과연 이씨는 낙태하여 죽었다.

조소사는 영전에 통곡하며 글로써 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시를 읊었다. ……

조소사는 그 이후로 세상에 뜻이 없어 꽃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기도 하며, “이 매현의 아리따운 용모와 슬기로운 언어를 다시는 보고 들을 길이 없으니, 내가 사는 것이 슬픔이 될 뿐이다.” 하고 음식을 전폐하다가 병이 깊어서 죽었다.<sup>19)</sup>

매죽당 이씨는 종실 완원군의 후예이다. 이씨는 어려서부터 꽃을 키우기를 좋아하였는데 얼마 지나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는 부인이 할 일이 아니다.”하고 모두 없애고 매화와 대나무 몇 그루만 남겼다. 그리고 스스로 매죽당이라는 호로 불렀다. 이로부터 날마다 여공을 부지런히 닦았다. 그러나 본래 총명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주역>에 제법 능통했으며, 또 노래와 시를 잘하였다. 그때 조옥잠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람됨이 맑고 고상했으며 문장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씨와 옥잠은 친구 관계를 맺고 몹시 친하게 지냈다. …… 그 담론과 의기가 군자의 풍모가 있었다. 그 뒤 옥잠이 죽었다. 이씨가 옥잠을 잃은 뒤 근심을 이기지 못하였다. …… 몇 년 뒤에 이씨가 또 피를 토하고 죽었으니 나이 열아홉 살이었다.<sup>20)</sup>

19) 이우성 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 上, 일조각, 1980, pp.274-276.

이매죽당과 조옥잠의 우정에 관한 위 두 기록은 야담과 전이라는 문장 형식 외에도, 각 인물의 성격, 죽음, 평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정교한 비교는 다른 작업으로 돌리고 여기서는 우선 이들의 우정이 기록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좌계부담>에 의하면 이 매헌은 길쌈이나 바느질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며, 문장이 뛰어난 인물이다. 중인 집 처녀인 조옥잠이 매헌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뒤 둘은 옛 친구를 만난 듯 속세의 남자들이 엿볼 수 없는 관계를 맺고 몹시 친하게 지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헌이 죽자 조옥잠은 세상에 뜻이 없어지고 눈물로 지내며 음식을 전폐하다가 병이 깊어서 죽는다. <매죽당이씨전>에 의하면 매죽당은 부덕에 충실한 한편 총명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노래와 시에 뛰어난 인물이다. 조옥잠 역시 문장을 잘 하는 인물로 두 사람은 봉우 관계를 맺고 몹시 친하게 지냈는데 둘의 담론과 의기가 군자의 풍모가 있었다. 조옥잠이 먼저 죽자 매죽당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몇 년 뒤에 피를 토하고 죽는다. 이 두 기록 모두 빠트리지 않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의 절친한 우정과 한 사람이 죽자 따라죽었다는 것이다. <매죽당이씨전>에서는 몇 년 뒤에 죽었다고 했지만 조옥잠이 죽은 뒤 안타까워하는 사를 읊는 것 뒤에 바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해서 조옥잠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좌계부담>에서 매헌이 죽은 뒤 조소사가 슬픔에 잠겨 “이 매헌의 아리따운 용모와 슬기로운 언어를 다시는 보고 들을 길이 없으니, 내가 사는 것이 슬픔이 될 뿐”이라고 한 것을 참고하건대 이 행간

20) 임경주, <梅竹堂李氏傳>, 김균태, 『문집소재전자료집』, 계명문화사, 1986, “梅竹堂李氏, 宗室完原君之後也. 李氏少好畜華卉, 既而歎曰: 此非婦人之任矣, 悉去之, 只置梅竹數本. 遂自號梅竹堂. 由是日治女工惟勤. 然性聰慧好學, 頗通周易, 又善爲歌詩. 時有女子趙玉簪者, 爲人清高, 解文辭. 故李氏與玉簪, 結爲朋友, 甚相得. …… 其談論意氣, 盖有君子之風. 其後玉簪死, 李氏既失玉簪, 恙不自勝. 後數年, 李氏又吐血死, 年十九矣.”

에 조옥잠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같은 것이 생략된 것은 아닐까? 위 두 기록에서 보이는 그리움과 상실감, 그리고 (情死에 가까운) 따라죽기에까지 이르는 두 사람의 관계는 동성애라는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 관계,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지 실상은 동성애적인 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기록은 두 여성의 관계를 지적인 교류, 우정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일어난 우정담론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방한림전>에서도 보았듯이 우정, 지기라는 말은 동성애적인 요소를 포함한 관계를 지칭하는 데도 곧잘 쓰일 수 있는 언어이다. 따라서 위 두 여성의 관계도 우정이라는 전제 하에 맑고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방한림전>에 등장하는 두 여성인물의 관계도 지기나 우정으로 환원된다. 이때 우정, 지기라는 언어는 동성애적인 관계를 은폐하는 언어로 동성애를 탈성화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여성 동성애의 경우 더욱 우정이나 지기로 받아들여려는 경향이 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1)</sup>

우정이나 지기로 지칭된다 할지라도 <방한림전>이나 이매죽당과 조옥잠의 관계 같은 여성간의 짝은 우정 관계 혹은 동성애적인 관계가 기록되고 어느 정도 거부감 없이 수용된 것은 성애적인 요소, 짝은 감정적인 요소나 육체적인 관계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세종이 보여준바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요소를 ‘추잡한 것’으로 배제하는 원리가 조선사회 내내 지속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동성애는 다시한번 억압되고 타자화된다. <방한림전>도 이러

21) 1920-30년대 동성(연)에 관한 기사의 수사적 맥락을 살핀 연구에 의하면 여성 동성애의 경우 낭만적 수사학의 지배를 받으며 감정과 정신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탈성화된 이미지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신지연, 앞 논문, p.279.

한 배제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방한림전>은 지기관계를 전유하여 두 여성인물을 결혼에까지 이르게 한 설정을 통해 동성애적인 요소를 다른 작품으로 새롭게 평가될 만하다. 이러한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이후 조선사회의 성담론이 여성의 달라진 의식을 바탕으로 큰 진폭으로 흔들리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5.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방한림전>은 방관주와 영혜빙이라는 두 여성인물을 등장시켜 고정된 젠더 체계와 이성애에 기반한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이 글은 <방한림전>의 주제의식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성결혼을 통해 젠더 위반에 대한 급진적 상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작품 내에서는 매우 절제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동성애적 면모를 조선사회에 은폐되어 있던 동성애의 소설적 표현이라고 보고 이를 조선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방한림전>이 보여주는 젠더 위반의 표지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방관주와 남자의 절제를 받는 가부장적 결혼을 거부하는 영혜빙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방한림전>은 방관주와 영혜빙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설정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젠더 위반을 끝까지 밀고나가서 동성결혼 속의 지기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결혼은 유교 사회에서 남자들의 우정관계를 지칭하던 ‘지기’를 전유한 것으로 동성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따라서 <방한림전>에 설정된 동성결혼은 젠더 체계를 흔들고 이성애에 기반한 가부장적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상상을 보여준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이 당대 사회에서 허용되기 어

렵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기에 우울과 냉소가 작품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방한림전>은 우울과 냉소, 고립된 생활을 가져온 젠더 위반과 동성결혼이 사회적으로도 허용 받는 것으로 작품을 끝낸다. 이런 점에서 <방한림전>의 성의식은 급진적인 면모를 갖는다.

<방한림전>은 젠더 위반을 통해 젠더 체계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기관계의 전유를 통해 동성애가 놓일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담론의 새로운 장을 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방한림전>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이나 적절히 호명되지 못하고 부재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나 동성애를 존재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이 여성의 위치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인식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성애적인 부분에 대해 극도로 절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동성애를 탈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매죽당과 조옥잠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소설사의 흐름에서 볼 때 <방한림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전개를 공유하면서 조선사회의 저변에 흐르던 동성애적 흐름을 소설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성애에 대한 담론은 1920-30년대 일본으로부터 동성애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방한림전>은 이런 흐름에 앞서 동성애, 동성결혼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성애, 동성결혼 문제가 단순한 흥미요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젠더 체계나 성정체성의 고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들어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한림전>이 보여주는 이 같은 면모는 조선후기 소설이 통속성을 띠는 한편, 사회 저변을 흐르는 새로운 기류에 민감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 하겠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CD』

『해사록』

김균태, 『문집소재전자료집』, 계명문화사, 1986.

강진옥, 「이형경전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pp.73-121.

김정녀, 「<방한립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21집, 반교어문학회, 2006, pp.223-252.

김하라, 「<방한립전>에 나타난 지기관계의 변모」,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어국문학회, 2002, pp.225-245.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pp.156-193.

신지연, 「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6, pp.265-292.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 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방한립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pp.109-155.

이우성 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 上, 일조각, 1980, pp.1-468.

장시광, 「<방한립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pp.254-276.

장시광,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립전』, 한국학술정보(주), 2006, pp.1-265.

차옥덕, 「<방한립전>의 구조와 의미-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113-169.

차(배)옥덕, 『백년 전의 경교-방한립전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pp.1-513.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WIG,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사람생각, 2008, 사람생각, pp.1-359.

## ABSTRACT

Radical Imagination of Gender in Chosun Dynasty in *Banghannimjeon*

Kim, Kyung-Mi

*Banghannimjeon* is notable in the sense that it implicates radical imagination of gender. In this work which is supposed to be written in the late 19th century, a character with new gender identity which shows the subversion of the existing gender system, and a character who denies the patriarchal marriage because of the critical sense of the established marriage are found. Moreover, this work goes so far as to show the marriage between the same sex. Of course, this work tries to emphasize these two characters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Nevertheless, it is no doubt that under this suggestion the aspect of homosexuality is hid. Because of this new tendency of *Banghannimjeon* which reflects new consciousness of women and sexuali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is work is distinguished from other novels of heroines.

This study focuses on this aspect of gender identity and analyses the homosexual implication of the marriage between Bangkwaju and Younghyebing.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thought on homosexuality and other cultural aspects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is study could see that the radical imagination of gender in *Banghannimjeon* is a kind of fictionalizing of homosexuality which had been hid in that society. Although this work could not clearly provide new language of homosexuality, the radical thought of sexuality which is implicated in this work is very remarkable.

**Key Words** *Banghannimjeon*, gender identity, gender system, homosexuality, radical imagination of gender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